

“화순지역, 남해안 글로벌 관광벨트 핵심거점 육성”

김영록 지사, 화순서 정책비전투어 첨단의약 클러스터 등 7대 비전 제시 폐광지역 신산업·고인돌 명소화 추진 군 ‘남산공원 야간경관·蘭 산업’ 요청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화순이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열고 남해안 글로벌 관광벨트 핵심거점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4일 화순군청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화순군 정책비전투어에서 “화순군은 고인돌 유적지와 화순적벽, 운주사 등 이색적인 매력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데다 모산마을이 유엔세계관광기구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글로벌 관광지다”며 화순 맞춤형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지난해까지 진행한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도정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소했지만, 도민과의 더 깊은 소통의 필요성과 지역의 잠재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시·군, 전남연구원과 함께 지역 맞춤형 미래 비전을 마련, 지역민에게 제안하는 정책비전 투어로 업그레이드했다.

이날 화순군 정책비전투어에는 구복규 화순군수, 오형렬 화순군의회의장, 임지락·류기준 전남도의원,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 조준성 화순농협 조합장, 김미란 화순군 청년협회의체위원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김 지사는 가장 전남다운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신념으로, 열정을 바치고 있다. 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4일 화순군청 대회의실에서 ‘화순군 정책비전 투어’ 토론회를 주재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 등 지역 발전에 대한 의견과 제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선 8기 들어 에너지산업과 첨단전략산업의 전기를 마련했고, 글로벌 도시로의 초석도 닦았다”며 “세계로 웅비하는 전남도가 발맞춰 화순군도 도정에 적극 협력하면서 모두가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전남의 행복도시! 새로운 화순’을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화순은 광주를 비롯해 도내 7개 시군과 접한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 문화·관광 등 뛰어난 자원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최근 여러 성과를 내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혁신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화순군이 최초로 시작한 ‘만원주택’은 정부혁신 우수사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또 전남도가 평가한 다산안전대상 최우수 기관, 도 농정업무 종합평가 4년 연속 우수상도 수상했다”고 추켜세웠다.

이어 “화순군이 발전해야 전남시대도 가능하다. 전남도·화순군·전남연구원이 머리를 맞대고 화순의 미래 지역발전을 위한 7대 비전을 마련했다”며 “지역민의 끝없는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화순을 명품 도시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가 제시한 화순 발전 7대 비전은

△글로벌 첨단의약 클러스터 본격화 △폐광지역 신산업 새로운 전기 △고인돌 국가정원 명소화 △도곡온천 레저·치유명소로 재탄생 △메디푸드·스마트 농축산업 전진기지 △반려 동식물 혁신 거점화 △화순발전 대응책, 광역도시권 연계 SOC 다.

이날 화순군은 남산공원 야간경관 조성 사업 지원과 난(蘭)산업의 혁신과제 추진을 요청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군민의 휴식공간인 남산공원에 빛·꽃·문화·예술이 어우러진 특색있는 지역의 고유성을 담은 야간

경관 특화공간을 조성해 관광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전남도에 도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국내 유통되는 난은 대부분 중국·대만 산이다. 매년 6000억원에서 7000억원 정도를 수입하고 있다”며 “난산업을 전남도가 2025년 도 혁신과제로 추진하면, 지역 농가의 소득 창출도 가능하다. 전남도가 지원하면 화순군이 난 산업 메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경수 화순군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고물가·고금리·경제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해 부담을 줄이고 있다”며 “하지만 이 수수료 마저 부담이 되고 있어 보증서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장재선 화순군 귀농귀촌협의회장은 “귀농귀촌 민간거버넌스 지원사업 국비 예산 삭감으로 화순군 귀농귀촌학교 프로그램 사업 운영이 쉽지 않다”며 “초보(예비) 귀농·귀촌인의 지역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다양한 도시민 유치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미란 화순군 청년협회의체 위원장은 시군별로 운영 중인 청년협회의체 간의 원활한 소통과 정보 공유를 위해 소통채널 구축과 활성화 지원을 요청했으며, 박연 화순군 폐광대책협의회장은 폐광지역 환경유해인자 발생 등 우려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의 건강검진비 지원을, 정대현 쌀전업농 화순군연합회 회장은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지원 기준을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 모델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동환·화순·김선중 기자

이재명 “재보궐선거로 尹 정권 심판해야”

곡성서 주민 면담·백세미 수확 시연 곡성 당원 100명, 조국혁신당 입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10·16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곡성을 찾았다.

이 대표는 이날 곡성군 곡성군민회관에서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인사들과 면담

을 했다. 그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지난 총선에서 그렇게 혼이 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이번 선거는 심판의 성격을 갖기에 혼을 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곡성군에 위치한 석곡농협 백세미방앗간을 찾아 백세미 수확을 시연하고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앞서 지난 23일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했다. 영광은 이번 재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초접전을 벌이는 곳으로, 민주당은 재보선 선거구(곡성·부산 금정구·인천 강화) 가운데 영광에서 ‘첫 최고위’를 열며 집중 공세를 예고했다.

현재 민주당은 전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 10명 전원과 정기호 전 영광군수를 지역 선대로부터 꾸리는 등 영광·곡성군수 재

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곡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천 과정에 대한 ‘불공정’을 제기했던 당원들이 대거 혁신당 입당을 선언했다.

‘곡성군민 100인’ 이름의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곡성군민 100인은 민주당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정당 활동을 했다”며 “하지만 곡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국민경선 100%라는 경선 방식으로 권리당원의 참정권을 빼앗

아 갔다”며 입당 배경을 밝혔다.

곡성군민 100인은 “민주당의 경선은 무소속 인사에 뒷문을 열어준 비열한 방식이었으며 당원권을 박탈했고 지역 정치를 무시한 것”이라며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경선 방법을 도입한 민주당에게 스스로 내세웠던 당원 민주주의는 어디로 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곡성의 민주당원들은 박탈감과 상실감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오지현·곡성·김대영 기자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 · 유치원 · 한옥 내 · 외부 · 방바닥 · 전원주택 · 경로당 · 아파트 · 펜션 · 찜질방 · 카페 · 휴집
외벽 · 목재 · 양어장 · 물탱크 · 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 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 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숯, 편백나무, 약쭉,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황토리

살아 숨쉬는 천연 황토 코팅제!!

누구나 쉽게 바르는 천연 황토 벽지!!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곱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